

C-8. 상악 전치부에서 인위적 급속 치아 정출술 후 심미적인 보철을 만들기 위한 제안

박병기¹, 김병욱¹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¹

인위적 치아정출술(Forced eruption)은 연속적이고 약한 힘을 치아에 적용하여 연조직과 골의 변화를 유도하는 Slowly Forced eruption 방법과 단기간에 강한 힘을 치아에 적용하여 치아를 치관부로 이동시키는 Rapid Forced eruption 방법이 있다. 이 포스터에서는 Rapid Forced eruption 후 심미적인 보철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외상이나 치아우식에 의해 치아가 치조골 하방에 존재하는 경우 근관치료와 수복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외과적 치관연장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술은 주위의 골을 없애므로 치근의 과민성, 임상적 치관 길이의 증가, 불리한 치관/치근 비율의 변화, 심미성의 훼손, 치간공극의 노출, 불규칙한 치은형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적절히 조절된 치아정출술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치아를 유지시켜주는 또 다른 방법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치아의 교정적 맹출을 통해 특히 단근치의 경우 치은연 수준에서 치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좁은 지름을 갖게 된다. 이때 치근 부위가 인접치아의 치근과 가까울 때는 치간 간격의 증가를 통한 수복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간 간격의 증가로 인한 black triangle 발생과 수복물의 overcontouring이 문제가 발생되어 심미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포스터에서는 인위적인 치아정출시 필요한 임상적인 고려 사항과 치아를 정출시킨 후 치아와 함께 따라 올라온 치은의 처치 및 심미적인 최종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인상법의 임상적 적용방법과 증례를 살펴보고자 한다.